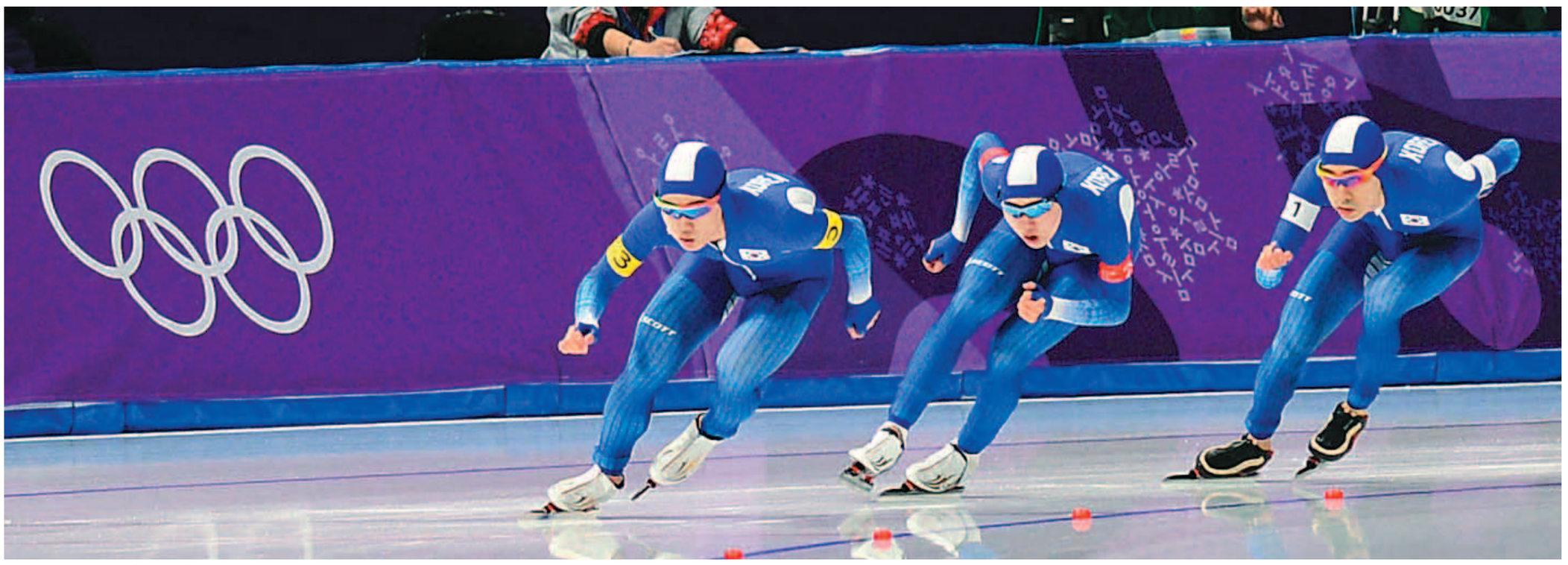

김민석, 정재원, 이승훈(왼쪽부터)이 18일 강릉오벌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 준준결승에 출전해 폭풍처럼 질주하고 있다. 남자팀추월대표팀은 8개국 중 1위로 준결승에 올랐다. 강릉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 압도적 경기력·1위로 준결승 진출…금메달 느낌이 온다

**이승훈-김민석-정재원, 랩타임 13초대 유지**
**3분39초29…8개 출전국 중 1위로 준결승행**

남자팀추월대표팀이 18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준준결승에서 8개 출전국 가운데 1위로 준결승에 올랐다.

이승훈(30·대한항공)-김민석(19·성남시청)-정재원(17·동북고)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8개 팀, 4개조로 편성된 준준결승에서 2조에 속해 경기를 치렀다.

유럽의 다크호스 이탈리아를 상대로 압도적 경기력을 보이며 3분39초29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400m 트랙 8바퀴, 총 3200m를 도는 레이스에서 첫 바퀴를 17초68로 마친 대표팀은 이후 꾸준히 랩타임 13초대를 유지하는 안정적 경기 운영능력을 보여줬다.

대표팀은 1조에서 경기를 치른 노르웨이의 종전 1위 기록(3분40초09)을 0.80초차로 경신하며 새롭게 1위로 올라섰다. 이후 남은 2개조, 4개팀(3조 일본·캐나다/4조 네덜란드·미국)이 레이스를 펼쳤지만, 한국의 3분39초29를 뛰어넘지 못했다.

한국은 8팀 중 상위 4팀에 주어지는 준결승행 티켓을 1위 자격으로 거머쥐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2014소치동계올림픽 남자 팀추월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던 한국은 이날 준준결승에서 4위를 차지한 뉴질랜드(3분41초18)와 21일 오후 8시 22분 결승 진출을 다툰다. 디펜딩 챔피언 네덜란드(3분40초03)는 3위 노르웨이(3분40초09)와 준결승을 벌인다.

강릉 |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스켈레톤 황제' 윤성빈을 맞이한 세 풍경

## 조영희 금메달·김연아 은메달…의원님은 실격입니다

〈윤성빈 어머니〉

**윤성빈 스켈레톤 4차시기 金 확정 직후**
**박영선 의원, 통제구역서 축하해 논란**
**절차 지킨 어머니·김연아와 다른 모습**

2018평창동계올림픽 썰매 종목 경기가 열리고 있는 올림픽 슬라이딩센터 피니시 하우스는 매우 협소하다. 폭 1.5m, 길이 2018 m에 이르는 트랙이 끝나는 지점. 선수들이 4년간 흘린 땀과 노력이 기록으로 결실을 맺는 장소다. 윤성빈(24·강원도청)은 설날인 16일 오후 열린 남자 스켈레톤 경기 마지막 4차시기 주행을 끝낸 뒤 금메달을 확신하며 썰매에서 두 팔을 들어올렸다. 압도적 실력으로 '스켈레톤 황제'로 등극한 그는 한국 동계올림픽 역사상 첫 설상 종목 메달이란 값진 열매도 수확했다.

**●차마 지켜볼 수 없었던 어머니**

그 순간 관중석에서 딸과 함께 아들을 응원하고 있던 윤성빈의 어머니 조영희씨는 눈물을 펑펑 흘렸다. 스타트 순간부터 어머니는 양손을 기도하듯 마주잡고 차마 다 지켜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딸에게서 경기가 끝났다는 말을 듣고서야 함께 환호했다. 어머니는 한 참 뒤에야 아들을 만나 포옹할 수 있었다. 위험한 경기를 마치고 금메달을 확정지은 아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안아 주고 싶은 것이 모든 엄마의 똑같은 마음이지만 정해진 절차와 규칙을 따라 기다렸다.

**●피니시 라인에 서있었던 낯선 정치인**

윤성빈은 경기를 끝내자마자 가족이 아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등의 축하를 먼저 받았다. 이들은 경기구역 피니시 라인 썰매 픽업존, 즉 경기장 바로 곁에서 윤성빈을 기다렸다. 가장 낯선 인물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설날 자신을 응원해준 관중들에게 큰 절을 올린 윤성빈을 기다리다 포옹을 했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올림픽경기장 출입 자격이 있는 AD(Accreditation) 카드 발급 대상이 아니었다. 응원을 하고 싶으면 입장권을 구입해 윤성빈의 어머니처럼 관중석에 앉았어야 했다.

큰 논란이 이어지자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이보 페리아니 회장은 윤성빈이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감안해 게스트존에 위치한 박 의원 일행을 피니시 구역의 썰매 픽업존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초청 게스트도 경기 운영구역은 출입할 수 없다. 조직위가 추가로 '앞으로 경기장은 물론 대회 시설에 대한 출입 통제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인 이유다.

박 의원도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해명 과정에서 더 큰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아쉬움이 남는 건 올림픽에서는 어떠한 특혜도 없어야 하고 진심어린 배려가 가능했다면 그 대상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설이 나도는 유력 정치인이 아닌 선수가 가장 만나고 싶은 가족이 먼저였어야 한다는 점이다.

윤성빈이 16일 강원도 평창 슬라이딩센터에서 한국 동계올림픽 역사상 첫 설상 종목 메달을 금빛으로 물들이던 순간 어머니 조영희(왼쪽 사진 오른쪽)씨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딸과 함께 기뻐했다. 김연아는 검정색 마스크와 털모자로 정체를 숨긴 채 관중석에서 묵묵히 윤성빈을 응원했다. 평창 | 김종원 기자·연합뉴스

**●마스크를 쓴 피겨 퀸**

박 의원의 행동이 더 실망감을 안긴 건 사실 그 장소에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공을 세운 '피겨 퀸'이 관중으로 함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윤성빈이 주인공이었던 그날 김연아는 검은색 마스크와 털모자를 쓰고 열심히 응원을 했다. 윤성빈 어머니 바로 뒷줄 관중석에 있었지만 워낙 철저히 가려 쉽게 알아 볼 수 없었다. 박 의원에게는 없는 겸손과 존중이 김연아에게 있었다. 강릉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 여자아이스하키 막내 엄수연 "그깟 퍽 맞는다고 뼈 부러지나요"

**스위스전 0-2패…점점 나아지는 조직력**
**스웨덴과 7~8위전서 올림픽 첫 승 각오**

"퍽 맞는다고 뼈 부러지나요? 그까짓 멍도 사나흘이면 없어지는데요, 뭘."

고대하던 첫 승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제 남은 기회는 단 한번. 누구보다 절실한 선수들은 하나같이 "마지막 목표는 승리뿐"이라며 의기투합했다.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이 18일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위스와 5~8위 순위결정전 1라운드에서 분전 끝에 0-2(0-1 0-1 0-0)로 졌다. 최종전 상대는 같은 날 일본에 1-2로 진 스웨덴이다. 단일팀은 20일 열리는 스웨덴과의 7·8위전을 통해 올림픽을 마무리하게 된다.

비록 패했지만 경기력은 갈수록 향상되는 모습이었다. 스위스와 스웨덴을 상대로 한 1~2차전에서 모두 0-8로 졌던 단일팀은 14일 일본전과 이날 스위스전을 통해 견고한 수비벽을 자랑했다. 골리 신소정(28)이 여전히 안정된 선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교차해 나오는 수비수들 역시 조직력이 한층 올라온 모습이었다.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이 18일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위스와 5~8위 순위결정전 1라운드에서 0-2로 패하며 20일 최종 7~8위전 승리를 염원하게 됐다. 막내 엄수연(앞)은 "멍도 사나흘이면 다 낫는다"는 일념으로 스위스를 상대로 강한 몸싸움을 펼쳐보였다. 강릉 | 김종원 기자

14일 일본전 1-4 패배 이후 통한의 눈물을 흘렸던 선수들은 18일 경기 직후 옅은 미소를 띠었다. 갈수록 손발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만족감에서였다. 그러면서도 결연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최종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겠다는 일념이었다.

포문은 막내 엄수연(17)이 열었다. 아직 앳된 얼굴인 엄수연은 분당대진고 2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수비수'다. 그러나 빙판 위에서만큼은 언니들 못지않은 투지를 자랑한다. 경기 후 믹스트존 인터뷰에서 엄수연은 "모든 수비수는 실점을 원치 않는다. 퍽에 맞는다고 뼈가 부러지지도 않고, 멍도 사나흘이면 다 낫는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바통은 언니들이 이어받았다. 신소정은 "대회 초반에는 긴장이 많이 됐지만, 이제는 내게 날아올 퍽이 기다려진다"며 의지를 불태웠고, 주장 박종아(22) 역시 "지금까지는 너무나 소극적이었다. 그동안 준비했던 팀플레이가 나오고 있다. 우리 목표는 1승"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강릉 |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 男 피겨 간판 이준형 "이제 4회전 점프는 필수"

**평창올림픽은 해설위원 시선으로 관전**
**세계선수들 다양한 4회전 점프 큰 자극**

2018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은 4회전(쿼드러플) 점프의 향연이었다. 1~3위를 차지한 하뉴 유즈루, 우노 쇼마(이상 일본), 하비에르 페르난데스(스페인) 모두 프리스케이팅에서 완벽에 가까운 4회전 점프를 구사하며 세계 최정상급의 기량을 유감없이 뽐냈다. 프리스케이팅에서 최고점(215.08)을 받은 네이선 첸(미국)도 이날 프로그램에 6개의 4회전 점프 과제를 포함했다.

자연스럽게 이에 따른 국내 선수들의 경쟁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회에서 15위를 차지한 차준환(17)은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에 4회전 점프를 단 하나만 포함했다. 두 번째 점프 과제인 쿼드러플 살코가 그것이다. 금·은메달을 나눠가진 하뉴와 우노가 나란히 4개 이상의 4회전 점프를 포함한 것과 대조된다.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 구성부터 상위권 진입이 다소 어려운 구조다.

한국 남자싱글의 간판 이준형(22·단국대)도 4회전 점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대회에서 SBS 해설위원을 맡아 선수들의 연기를 지켜본 그는 "남자선수들의 다양한 4회전 점프에 충격을 많이 받았다. 한국 선수들도 이제는 세계적인 선수들과 나란히 하기 위해선 4회전 점프 한두 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4회전 점프를 잘하는 선수들과 함께 훈련해야 그만큼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나뿐만 아니라 (차)준환이도 자극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연기를 지켜보며 빙판 위에 있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가 할 것만 신경 쓰느라 다른 선수들을 잘 보지 못했다. 위에서 보니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는지 눈에 보인다. 올림픽이라는 자리의 무게도 깨달았다"고 말했다.

강릉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